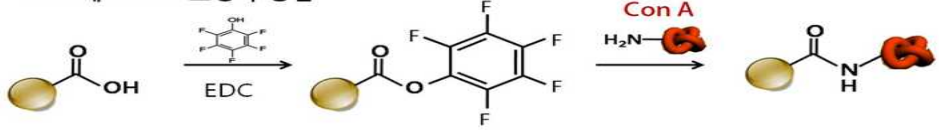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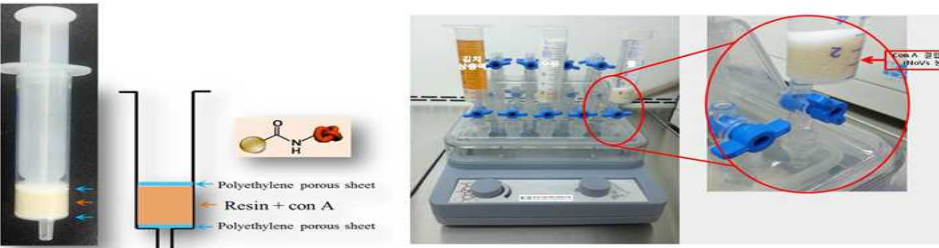


노로바이러스 신속농축기술 및 노하우

기술유형	기술이전기업	계약액	이전대상기술
노하우	솔젠트(주)	200백만원(정액) 매출의 5%(경상)	노로바이러스 신속농축기술 및 노하우 (전남대학교와 공동이전)
기술개발 내용	○ 겨울철에 빈발하는 식중독균인 노로바이러스 검출(예방)을 위해서는 바이러스 농축 및 유전자 증폭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, 기존 18시간 이상 걸리던 농축 및 진단시간을 1시간 이내로 개선한 기술로서, 생명과학연구부 권요셉·최종순 박사팀이 개발함. (전남대 김두운 교수팀 공동개발)		
	• Resin에 Con A 고정화 방법  • SPE type의 Con A 레진컬럼 및 농축장치  〈노로바이러스 농축 최적화를 위한 농축 키트 개발〉		
기술이전 내용 및 의의	○ 2012년 식중독균 중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국내 피해규모가 4천억원 수준이고, 2013년에는 수출용 굴의 노로바이러스 감염으로 800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등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, 농축 및 검출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해 실질적으로 사전예방은 거의 불가능하였음. ■ 노로바이러스 항체가 아닌 국내 작두콩에서 추출한 천연단백질(NoroGlue)을 이용하여 식품 내 노로바이러스 감염여부를 1시간 이내에 진단할 수 있는 획기적 농축기술을 개발 ○ 노로바이러스 검출의 핵심기술인 신속농축기술을 유전체 전문분석기업인 솔젠트(주)에 기술이전함으로써, 식중독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■ 수개월 내 노로바이러스 진단기술이 사업화될 경우, 신선식품의 수출입 손실방지, 집단급식시설내 식중독균 사전검출체계 구축 등이 가능 ■ 진단키트 상용화가 이루어지면 출연연-대학-중소기업간 융합연구를 바탕으로 한 창조경제의 모범적 사례가 될 것임.		